

'98 여름 기지촌 활동 전체 교양 자료'

일시: 1998년 7월 15일 (수) 2시

장소: 홍익대학교 강의실

- 내 용 -

- ♣ 기활의 의의
- ♣ 매매춘문제와 그 해결을 위하여
 - ♣ 기지촌 여성의 이야기
 - ♣ 기지촌 아이들 이야기
 - ♣ 기지촌 활동시 주의사항

1. 기지촌 활동이란

‘기지촌 활동’이란 말 그대로 ‘기지촌 지역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기지촌 지역, 기지촌 여성, 기지촌 어린이들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다함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기지촌지역이 생긴 배경, 한.미 관계,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한국 사회의 매춘문제, 혼혈아동의 문제등 다양한 방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활을 처음 시작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이해에 대한 고민을 많이하였고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느낄수 있는 여러 가지 보다는 막연한 당위감을 갖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현재 기지촌 활동은 ‘사람과 사람’간의 이해와 신뢰를 먼저 풀여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지촌 활동이라는 ‘터’ 안에서 사회적 편견이 깨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확신을 먼저 쌓아간 후 진정어린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문제는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벽이 아니라 그 오랜 역사만큼 긴시간 동안 조금씩 허물여가야하는 문제이므로 대단한 인내와 준비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는 힘이 되주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이다.

매매춘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하여 - 정부의 정책과 비정부기구의 활동

머리글-하소연할 곳 없는 매춘여성들, 외면하는 정부

A 컴퓨터에는 '스'시에서 도망나온 20대의 한 매춘여성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10대 후반에 인신매매당했으며 여러 매춘업소에 팔려다니다가 '스'시의 악덕포주에게까지 팔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천만원의 빚이 생겼다. 이 여성은 천신만고 끝에 다행히 도망칠 수 있었고 매춘여성을 위한 컴퓨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빚이 해결되기 전에는 언제 매춘조직폭력배들이나 포주에게 고용된 사람들에게 의해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가족들을 방문할 수도 없다.

한국사회에서 매춘여성이 매춘으로 인한 빚을 청산하고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쟁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매춘여성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경찰 조직은 매춘조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정부의 보호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매춘여성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비공개적으로 어렵게 활동해온 비정부기구들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은 포주와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에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매춘여성들도 항상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200만의 매춘여성들이 인권이 깃뻏힌 채 어렵게 도망쳐도 다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현실에 놓여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매춘문제를 주변의 문제로 취급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지난해 정부의 매매춘 관련정책은 매춘집결지를 없애버리는-한마디로 밀어버리는 것뿐이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매매춘을 더욱 음성화시키고 주택지역이나 서울인근지역으로 매춘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었다.

이런 조치의 목적이 매매춘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 당시 사회문제가 되었던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국 많은 경찰력과 행정력이 동원된 작년의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매매춘문제는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매춘여성들만 생활터전에서 느닷없이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다.

요즘 들어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청의 부녀복지계 관료들 사이에 서서히 매매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매춘여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기도청 부녀복지계의 경우, 기지촌이 집중되어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게 기지촌매매춘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는 10여년의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정부기구들과 피해당사자인 매춘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매매춘의 일반적인 양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소개하며, 매매춘문제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1. 한국사회의 매매춘의 일반적인 양상

해방후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산업화과정에서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농촌이 해체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사회에서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떠돌아 살리기 위해,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무작정 상경을 하였고 역전에서부터 인신매매조직에 걸려들면서 매춘을 하게되는 것이 1970년대 초까지의 일반적인 모습이였다.

이렇게 절대적 빈곤 때문에 고향을 떠나 서울이나 도시로 가서는 비군기지촌이나 특정집결지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포주와 연결되어 행해지는 매춘을 '전통형 매춘'이라고 한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정책으로 여성노동력이 파출부, 행사, 하청 등의 비공식적 노동부문에 제한되어 있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접객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었다.

경제구조의 불균등 발전과 상관없이 접객서비스업이 비대화되고 새로운 직종인 호스티스, 맛사지걸, 안마사, 민도사 등에 여성이 대거 고용되면서 간접적 매춘행위를 하게 된다. 이처럼 외관상으로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이지만 실상은 매춘여성과 다름없는 신종직업을 '산업형 매춘'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산업형 매춘이 확대되는 것을 특점재벌에 대한 정부의 특혜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이

들 독점재벌과의 경쟁에서 도태하게 되자, 중소기업가들은 기업운영에서 눈을 돌려 안전 투자로 기업보다 훨씬 손쉽고,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향락 접객서비스업종에 모여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향락산업은 날로 번창일로로 걷고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매춘여성의 수요를 창출시키고 있다.

기지촌에 80년대 후반이 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산업형 매춘'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정부가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동안 기지주변을 강력한 개발규제조치로 묶어놓았었고, 기지촌이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공창지역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보건소나 관청같은 기존의 행정조직만으로는 기지촌을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기지촌매춘여성의 자치기구로 행세했던 '민들레회'등을 기지촌마다 세우고 철저히 통제했다.

그러나 해방후 기지촌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미국문화로 인해 한국 땅에서 미국문화는 우월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의 상품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클럽주인들은 한국정부에 의해서 기지촌에 제공되는 특혜중 하나인 무자료술을 암거래하거나 경찰의 단속을 피해 한국남자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인다.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동두천 등에서는 포주들이 앞장서서 기지촌을 야예 관광특구로 만들었고 향락도시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매춘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매춘집결지와 흩어져있는 매춘업소들의 상황이 다르며, 도시에 있는 매춘업소와 지방에 있는 매춘업소의 상황이 다르고, 그 업소가 주택가에 있는지 공장지역에 있는지 군기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그 상황이 다르다.

서울의 매춘집결지가 정부의 단속으로 없어지거나 크게 축소되면서 많은 매춘여성들이 경기도 지역의 티켓다방이나 단란주점, 여관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티켓다방이나 단란주점, 여관 등이 모여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화발이(콜걸)를 포함한 매춘여성들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곳의 상황은 매춘집결지 못지 않게 심각하며 매매춘이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나 규제는 더욱 어렵다. 이것은 정부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외국인매춘여성들의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요즘들어 기지촌을 중심으로 외국인매춘여성들(대부분이 필리핀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매춘여성들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노동자로 국내에 불법취업해 있다가 생활고로 인해 매춘을 하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국제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필리핀에서 한국의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되어 온다.

한 기지촌의 경우, 클럽업주들이 그들의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그 지역 관광협회에 필요한 여성들의 수를 미리 신청하고 일년후 약속한 수의 필리핀여성을 인계받는 기가막힌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아직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매춘여성들은 다른 매춘여성들보다 더욱 열악한 인권유린의 상황에 처해있다.

매춘에 관하여 한마디로 정의내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한국의 매춘구조는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다. 같은 지역에 있는 매춘여성들조차 자신의 상황들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고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움터를 중심으로 한 기지촌여성운동가들은 10여년동안 매춘여성들을 만나고 매춘구조를 경험하면서 매춘에 대해 접근하는 몇 가지 주장을 구성할 수 있었다.

첫째는, 매춘여성들은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으로 매춘시장에 유입된다.

소수의 매춘여성들은 스스로 매춘을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접상담을 통해 대부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외적"사회적 요인들과 "내적"심리학적 요인들에 의해 제약되었다.

두번째, 매춘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필요에 의해 강제된다.

특히 매춘을 하게 된 가출소녀들을 면접할 때 그들이 가출후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임금노동과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다른 직장에 비해 매춘시장은 여성이 대부분이고 그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매춘은 성착취이며 사회적인 낙인에 의해 다른 직업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세번째, 매춘여성들은 포주들과 기동서방들, 직업소개소의 알선업자들, 인신매매범과 그들의 매후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당한다. 그리고 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다.

네번째, 매춘여성들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학대당한다.

가출한 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또는 인신매매에 의해서 10대초반부터 매춘을 하게 되는 소녀들이 많다. 이러한 어린이매춘은 명백히 성적학대이다. 성인매춘여성들도 매춘의 과정에서 손님, 포주, 기동서방들과 같은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성적으로 학대당하며 매춘자체가 성적학대이다.

다섯번째, 매춘은 매춘여성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다.

매춘여성들은 다른 여성들보다 높은 비율로 사기당하고 강간당하며 살해당한다. 매춘여성들은 대부분 강제로 술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과 관련한 병에 시달리며 에이즈 등의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한 계약과 질병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사회적인 낙인과 소외로 괴로워하며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2. 매춘에 대한 정부의 정책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매매춘에 대하여 엄격한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은 매매춘산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을 제외한 제반 정책의 태도가 일관되게 금지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매매춘을 일면 통제, 처벌하고 다른 일면 이를 허용하는 이중적인 정책태도를 취하여 왔다. 매매춘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매매춘이 발생하고 지속되어온 배경과 밀접하다. 발생초기부터 매춘여성들은 역사의 희생양이었다. 권력이 나서서 여성들로 하여금 매춘여성이 되게 강요하였고 그 여성들은 매춘여성이 되는것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80년대 초까지 기지촌매춘여성들은 정부의 공무원들로부터 “당신들은 외화벌이에 나선 애국자들이다.”, “당신들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위해 고생하고 있는 미군들을 위로해주는 민족주의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지촌매춘여성들을 철저히 이용하였다.

매춘여성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보사부, 내무부(지방자치단체), 법무부, 교통부, 노동부, 경찰청 등이 모두 관련부서이다.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는 매춘여성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는 노동부에서 그리고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위락시설을 중심으로 한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춘여성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내무부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녀복지과에서 이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즉 한쪽에서는 매춘여성들에게 주기적이고 공식적인 상담, 성병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상담소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상담과 검진 등을 받으러 다니던 여성을 불시에 검거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에서는 정부의 대매춘여성정책을 신뢰할 수 없으며 자원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러한 행정체계때문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나 개인에게 매춘여성의 사회복지와 직업교육사업을 위탁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켜 왔다. 1995년에 일어난 경기여자기술학원의 방화사건은 5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 사건으로 알려진 기술원의 비인권적인 상황과 실효성이 없는 교육내용 등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3. 비정부기구의 활동

매춘여성과 관련한 민간단체는 새유녀, 두레방, 막달레나의 집, 사마리아의 집, 소녀의 집 등이며 이러한 단체들의 협의체로 한소리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들과 상담자들은 대부분 10여년의 활동경험을 갖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도해왔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포주들에 맞서 도망친 여성들을 보호해왔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매춘여성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왔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새움터의 활동을 소개하려고 한다.

새움터는 1996년 동두천에 문을 열었다. 새움터는 2년에서 9년까지의 기지촌여성운동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의해 세워졌다. 기지촌매춘여성들과 기지촌어린이들의 상황을 사회에 알리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전국의 기지촌여성들, 국제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들, 혼혈인, 기지촌아동들을 상담한다. 항시적인 전화상담과 면접상담을 제공하며 의료상담, 법률상담, 전업상담, 위기상담 등을 주로 한다.

새움터는 매춘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동참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집단상담을 통해 이야기공동체, 밥상공동체를 유도한다. 위기상황에 있거나 전업이 가능한 매춘여성들은 집중적으로 장기상담한다.

② 전업사업

매춘을 그만두고 전업하려고 하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업의 가능성이 있거나 전업을 원하는 매춘여성들에게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면접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빗문제 등의 매춘조직과 연관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직업교육이나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직접 소개하기도 한다.

새움터는 효과적인 상담과 적응과정을 위해 허브판매 등의 사업을 개발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여성들은 집중적인 장기상담을 받으며 새로운 일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저축하여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

③ 공부방

기지촌어린이들중에서도 매춘여성의 자녀이거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어린이, 혼혈어린이들을 상담하며 학습지도한다. 엄마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대신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양부모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기지촌여성의 혼혈인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④ 기지촌활동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기지촌활동은 대학생들이 매춘여성, 특히 기지촌여성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여성문제를 학습하는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다. 대학생들은 단순히 교육받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기지촌여성들을 함께 돕고 연대한다.

4. 결론 - 정책적 대안

우리는 매매춘이 사라지는 날, 그리고 모든 성착취와 성학대가 사라지는 날을 꿈꾼다. 매매춘이 우리사회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매매춘에서 해방되는 날은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매매춘이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떠한 여성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여성들이 매춘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우리는 매일매일 꿈꾼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능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앞으로 더 효과적인 정책들이 계속 생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ㄱ. 강제된 매춘은 금지되어야 한다.

강제된 매춘, 어린이 거래를 포함한 모든 인신매매 등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합의와 조치가 필요하며 우리정부는 그러한 조치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ㄴ. 도망친 매춘여성들을 위한 피난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신체적인 학대, 강제구금, 빗으로부터 도망친 매춘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 그 피난처는 매춘조직의 폭력과 협박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도망친 매춘여성은 처벌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빗은 당감되어야 하며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 강제로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피난처는 재활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ㄷ. 기지촌을 포함한 매춘집결지와 음성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접개업소의 집결지마다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매춘업소들중 특히 집결지역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데다가 강제구금상태에 있는 매춘

여성들은 특히 여러가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집결지역마다 매춘여성들이 쉽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 상담소는 의료상담, 법률상담을 포함한 일반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피난처를 소개해줄수 있어야 한다.

ㄹ. 나이든 매춘여성들을 위한 양로원형태의 쉼터가 필요하다.

나이든 매춘여성들은 대부분 여러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서 전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이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양로원형태의 특별한 쉼터가 필요하다.

ㄱ. 매춘여성들을 조직한다.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춘여성들 스스로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 매춘여성운동가들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매춘여성들을 발굴하고 조직해야 한다. 먼저 매춘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다른 매춘여성들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ㄴ. 현행 윤락행위방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는 법률이다. 이것은 매춘을 강요하고 여성을 인신매매하고 매춘여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매춘여성들에 대해서는 복지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로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ㄷ. 기지촌매춘여성에 대한 미군에 의한 범죄를 줄이기위해 노력한다.

한국정부는 심각한 미군범죄에 대하여 미국정부와 미군당국에 항의해야 하며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하고 기지촌매춘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사건해결과정에 상담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과 정부의 사대적인 태도 때문에 아직도 미군범죄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사건은 흐지부지되곤 한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은 개정되어야 한다.

기지촌매춘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고 나서도 미군이나 포주의 보복이 두려워서, 생활고로 계속 소송을 벌어나갈 수가 없어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기지촌매춘여성 피해자에게는 사건해결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함께 해결하는 상담서비스가 중요하다.

ㅇ. 미군기지 이전및 철수에 관한 대책을 연구하고 준비한다.

미군기지 전환계획 수립시 기지촌여성인력고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군용 주거시설은 일반주택으로 개발하여 기지촌여성들과 그 아이들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며 기타 미군시설과 병원을 접수하여 약물중독자 재활, 혼혈아 구호, 에이즈 피해자 클리닉 등 서비스센터로 전환하도록 한다.

ㄱ. 외국인여성에 대한 국제인신매매를 금지한다.

한국정부는 필리핀여성 등의 외국인여성에 대한 국제인신매매를 금지해야 하며 국내인신매매조직을 처벌하고 외국인매춘여성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매춘문제는 이미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매춘상황을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래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생각할 때 정부는 당연히 매춘문제와 매춘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만이나 되는 매춘여성들의 대부분이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고 인권유린의 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매춘산업의 유혹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IMF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매춘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매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들은 그러한 기회를 만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여성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매매춘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매춘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한다.

기지촌 여성들 이야기

기지촌 여성들은 매춘여성이라는 질시와 더불어 자국남성이 아닌 외국군인을 상대한다는 현상으로 인해서 더욱 왜곡시켜 손가락질을 받는다. 스스로 '필요악'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면서도 '더러운 양갈보' '우리사회의 쓰레기'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일반 매춘 여성들에 대해 기지촌여성들은 예로부터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 정체감을 부여해 온 우리사회의 문화적인 전통을 크게 위배했다는 생각이 덧붙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춘 여성들보다 기지촌여성들은 더욱 심한 낙인이 찍히고 이러한 배척으로 기지촌여성들에게 새 취업의 기회는 더너우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 기지촌 여성들은 전쟁이라는 사회적 변동과 미군의 주둔으로 이어지는 종속적인 한.미관계의 희생자이다. 한국사회는 종속적인 입장에서 미군의 한국주둔이라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여성들을 공급하는 사회적 계제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애써 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새움터에서 현재 상담의 사례 몇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1. 클럽여성(매춘여성)
2. 국제결혼한 여성
3.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
4. 클럽주인, 펌푸, 꽃아줌마
5. 전업한 여성

기지촌 아이들의 이야기

기지촌 여성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미군을 상대로 일을 하면서 술과 매춘에 지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렵다. 아이들은 밤마다 엄마가 일하는 클럽문을 들락거리며 미군과 여성들이 한데 마시고 춤추는 모습을 보며 지낸다. 또한 미군과 흥정하는 팸푸아줌마, 술을 마시고 횡포를 부리는 미군들, 술에 취한 이모들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기지촌의 거리가 곧 이들의 놀이터인 것이다. 더한 경우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미군과 함께 자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외에도 기지촌의 저질 비디오, 미국 우월주의, 인종차별, 군대문화등은 기지촌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 기지촌에 범람하는 저질 비디오는 아이들이 접하기도 쉬워서 테이프에 나온 장면을 흉내내다가 여자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기지촌에는 혼혈아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모두 한국사람이 아이들도 많이 있다. 그들의 부모중에는 포주이거나 이군과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혼혈아동의 상황과 그외의 기지촌 아이들의 상황은 서로 다른점도 있지만 기지촌 문화가 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만큼은 결코 다르지 않다.

1. 혼혈아동과 혼혈인

①모자가정의 아이들

②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

③혼혈인

2. 지역아동

①기지촌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

②빈민가정의 아이들

③가정불화인 아이들